민주, '검찰개혁 법안' 안건조정위 회부…4월 처리 속도

이르면 23일 중 심사 돌입
법사위는 국힘 반발로 파행
19년만에 평검사 회의 토론
박병석 국회의장 해외 출장 보류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검찰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검찰개혁법 입법에 박차를 가하며, 4월 임시국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의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반면, 평검사들은 "재판청구권 침해, 적법절차 원칙의 훼손 등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했다. 민주당 법사위원 8명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이날 오후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소청법 제정안 등에 대해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위원회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다.

이에 따라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도 오는 21일 오전 10시까지 안건조정위에 참여할 위원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르면 23일 중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심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검수완박 법안'을 다룰 법안소위가 파행하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안건조정위를 열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안건조정위원회는 법사위 소속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며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면 소위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입법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9일 모인 일선 검찰청 소속 평검사들이 위헌 우려를 제기하는 등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전국에서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평검사회의는 2003년 이후 19년 만이다. 회의에서는 기소와 수사의 분리는 결코 글로벌 스탠다드의 관점에 부합하지 않고, 기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서도 수사가 분리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한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관련 주제도 다뤄졌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검찰총장 등이 국회에 출석해 비공개로 수사 현안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 방안도 꺼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 훼손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평검사들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검찰이 자정할 부분도 의견을 개진했다. 검찰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도 토론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는 23일부터 내달 2일까지 예정됐던 해외 출장을 보류했다. 박 의장 측은 20일 "외교 경로를 통해 방문 국가에 양해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달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공포하는 것이 목표라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4월 국회 중에 처리하겠다고 속도전을 벌여 왔다. 여기에 박 의장의 해외 출장이 겹치면서 이번 주 안에 속전속결로 입법을 완료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심사할 법사위 제1소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개회됐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 담양군수·55개 광역의원 경선 후보 선정

민주당 전남도당이 담양군수 후보를 김정오 담양군의회 의장, 이병노 전 담양군 자치행정국장, 최화삼 담양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3명의 후보자 간 경선을 통해 결정키로 최종 확정했다. 또 민주당은 55곳 광역의원 경선 후보자와 방식을 확정 발표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담양군수 및 광역의원 경선 후보자들을 확정, 발표했다. 담양군수의 경우 최형식 담양군수가 3선 연임 제한으로 불출마하는데 따라 무주공산이 되면서 후보자 간 공천 경쟁이 치열했다.

전남 광역의원 선거구 55곳의 경선 후보자와 방식도 결정됐다. 공관위는 12곳의 경우 3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경선을 진행키로 했고, 26곳은 2명 경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들 선거구 38곳은 당원 경선(권리당원 투표 100%)으로 실시한다. 17곳에 대해서는 단수 공천했다. 기초의원 경선지역은 전남도의회에서 선거구와 선거구별 정수 등이 확정되면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광역의원 선거구별 경선 명단.

▲목포1 고경석·최선국 ▲목포2 문상수·조옥현 ▲목포3 박문옥·정정익 ▲목포4 최정훈 ▲목포5 전경선 ▲여수1 서완석·이광일 ▲여수2 민병대·서대현·서정한 ▲여수3 강문성 ▲여수4 주연창·최무경 ▲여수5 고희권·최병용 ▲여수6 서일용·정정호·주종섭 ▲순천1 유혜숙·정영균 ▲순천2 한춘옥 ▲순천3 김정희 ▲순천4 서동욱·허유인 ▲순천5 김진남 ▲순천6 신민호 ▲순천7 박종호·한숙경 ▲순천8 김정이·양동조 ▲나주1 김호진 ▲나주2 최명수·한영기·홍철식 ▲나주3 이재태 ▲광양1 김정태·임형석 ▲광양2 강정일·김길용 ▲광양3 김태균 ▲광양4 김장권·박경미 ▲담양1 박종원 ▲담양2 김기성·이규현 ▲곡성 정옥님·진호건 ▲구례 이현창 ▲고흥1 권영길·송형곤·장경자 ▲고흥2 박선준·이재기 ▲보성1 김재철·신경균 ▲보성2 이동현·이현우 ▲화순1 임지락·임탁진 ▲화순2 문안식·민병흥·유기준 ▲장흥1 유상호·이충식 ▲장흥2 윤명희 ▲강진1 김한성·차영수 ▲해남1 김병덕·김성일·천정술 ▲해남2 윤재홍·조광영 ▲영암1 김선찬·신승철·이행도 ▲영암2 손남일·조정기 ▲무안1 박막동·정길수 ▲무안2 나광국 ▲함평 모정환 ▲영광1 박원종·심기동·정홍철 ▲영광2 오광덕·이국섭·이장석 ▲장성1 윤시석·정철 ▲장성2 김건태·김회식·정기성 ▲완도1 김재현·김찬호·이철 ▲완도2 신의준·임현우 ▲진도 김인정 ▲신안1 김동근·김문수·주윤덕 ▲신안2 최미숙

/김지을 기자 dok2000

양향자 이탈하자 민형배 탈당…경찰 출신 권은희는 찬성
'검찰개혁 법안' 놓고 광주 국회의원 3명 엇갈린 행보 눈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놓고 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 진행 지연' 수단인 안건조정위 회부를 불사하는 등 결사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인 가운데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우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광산 을)은 20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의 안건조정위 회부를 염두에 둔 결단으로 읽힌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각 3인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 1명을 무소속에 주겠다며 민형배 의원으로 지정하면 안건조정위는 4대 2로 무력해진다.

민 의원의 전격적인 탈당은 전날 친여 성향 양향자 의원(서구 을)의 검수완박 반대 입장에 따른 것이다. 지역 보좌관의 성범죄와 관련, 민주당을 자진 탈당한 양 의원은 당초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었으나 지난 7일 법사위로 사보임됐다. 이를 위해,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에서 기재위로 옮겼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최장 90일까지 진행되는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친여 성향 무소속인 양 의원을 법사위로 불러들였다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양 의원이 지난 19일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비공개 입장문을 작성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양 의원은 입장문에서 "이번 법안은 한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재설계하는 입법이다. 오류를 일으킨다면 국민의 삶에도, 민주당의 미래에도 해악이 될 것"이라며 "저는 국가 이익을 위해 양심에 따라 이번 법안에 따르지 않겠다"고 적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민형배 의원

양향자 의원

권은희 의원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양향자 의원 카드인 '플랜 A'가 사실상 어렵게 되자 민형배 의원이 탈당에 나서고 안건조정위원으로 지정되는 시나리오인 '플랜 B'를 실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검수완박 처리를 위한 민주당의 정치적 꼼수가 지나치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 사보임과 탈당 등이 가져올 파장이 전체적으로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검수완박 법안 반대로 양 의원의 민주당 복당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또 검수완박 법안이 처리된다면 차기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자리를 노리고 있는 민 의원에게 호재가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광산 을 지역구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냈던 국민의힘 비례대표 권은희 의원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에 사실상 찬성 의견을 밝혀, 이슈가 되고 있다. 경찰 출신인 권 의원이 민주당 손을 들어줄 경우, 국민의힘이 예고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맞불 전략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는 국회의원 180명이 찬성할 경우 24시간 만에 강제 종결될 수 있다.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172명)과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7명)에 권 의원까지 필리버스터 종결에 찬성한다면 180명을 채울 수 있다. 국민의당 원내대표였던 권 의원은 그동안 국민의힘과 합당에 반대, 당 지도부에 제명을 요구해놓은 상태여서 이 같은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접수기간 4.1.(금) - 4.28.(목) 18:00 마감 ▶ 서류심사 5.11.(수) - 5.18.(수)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발표 ▶ 온라인투표 5.27.(금) - 6.21.(화) www.asiaculturecity.com ▶ PT 심사 및 시상 6.30.(목) 예정 전일빌딩

시상내역 총 9,900만 원(상금 2,000만 원, 자금지원 7,900만 원)

상격	시상내역	수상자	상금	사업화자금
대 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및 상금	1팀	1,000만원	5,000만원
최우수상		1팀	500만원	2,900만원
우 수 상	상금	1팀	300만원	
참 가 상		2팀	각 100만원	
계			2,000만원	7,900만원

공모분야 문화예술·관광 등의 분야 상품화가 가능한 사업 아이디어

참가자격 광주광역시 소재 문화산업·관광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자(이전·창업 예정자 포함)로서, 문화예술·관광 등 분야 사업 아이디어를 상품화 하려는 자

제출서류 참가신청서/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

접수방법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www.gosims.go.kr) 접수

문의사항 운영사무국 070-4344-3305

온라인 사업설명회 사전 신청 > https://bit.ly/3O89iqR
4/25(월) 15:30~

문화체육관광부